

자연이 준 황금어장... '황금시대'를 꿈꾼다



장지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진작지'다. 길게 늘어진 해변에 자갈이 깔려있다고 해 진작지라 불리다 장지(張芝)가 됐다.

감성돔·농어·전복 등 해산물 풍부하고 방풍나물·머위도 자랑거리
주민들 분기별 생일파티 등 정 넘치고 '한달 살이' 좋은 곳 입소문
비렁길의 종착점...관광객 더 늘도록 출렁다리·접안시설 보완 필요

'황금어장'의 장지마을이 '황금시대'를 꿈꾼다.

금오도는 금(金)자라(鰲)의 섬이다. 섬의 모습이 자라처럼 생겼다고 하여 불리어지게 된 이름.

불과 100여년 전까지는 호랑이가 살던 곳이기도 하다. 호랑이가 두려워 주민들이 당제를 올렸을 정도로 골이 깊고 산세가 장엄했던 곳이다.

장엄한 산세는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금오도의 특별한 힘이 됐다.

금오도하면 사람들은 '비렁길'을 떠올린다.

금오도 함구미에서 장지까지 이어지는 18.5km. 옥빛 바다와 기암괴석이 하늘 그리고 바다와 어우러진 길이다. 바다 위의 산책을 위해 많은 이들이 금오도로 향하는 배에 오르고 있다.

비렁길의 끝에 있는 마을이 장지마을이다. 1코스에서 시작된 비렁길은 5코스 장지마을에서 끝이 난다.

장지마을은 자연이 준 선물 같은 마을이다.

마을 전체가 남향을 보고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뒷산이 북풍을 막아주어 따뜻한 이곳은 양지(陽地)마을이라고도 불렸다. 해안을 따라 길게 검은 자갈이 깔려있다고 하여 '진작지'로도 불렸다.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진작이라는 이름을 쓴다.

따뜻한 날씨는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

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추위를 피해 관광객들이 장지마을로 모인다. 사시사철 낚싯대를 드리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유다.

자연은 온화한 기후와 함께 또 다른 선물을 주었다.

이병호(63) 어촌뉴딜 300 사무장은 자신의 고향 장지마을을 '황금어장'이라고 부른다.

그는 직접 잡은 커다란 참돔 사진을 보여주며 "장지마을 바닷속에 개불이 많이 난다. 고기가 개불을 먹으려고 물러들기 때문에 바다 낚시하기에 좋은 황금어장이다"고 웃었다.

감성돔, 불락, 참돔, 농어 등이 풍부한 이곳은 전복, 소라, 미역, 툇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이곳 바다를 터전 삼아 물질을 해왔던 어르신들도 여전히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4명의 해녀가 '황금어장'을 누비고 있다.

물에서만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오도의 특산물로 꼽히는 방풍나물과 머위도 이곳 장지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자원이다.

황금 같은 자연 속에서 장지마을이 더 빛나는 것은 따뜻한 정이다.

'뚝순이 이장'으로 통하는 김명심(여61)씨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은 분기별로 함께 생일파티를 연다. 장지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는 이들의 생일을 함께 챙기고 돌보는 이들은 2년에 한 번씩은 커다란 마을 잔치도 연다. 잔치가 없는 해에는 봉사단을 초청해 마을 벽화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면서 함께 마을을 가꾸고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저런 매력에 가득한 장지마을은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이'에 좋은 곳으로도 소문이 났다.

도심 생활에 지친 외부인들이 장지마을



장지마을은 금오도를 대표하는 비렁길의 종착점이다. 비렁길 마지막 5코스에 있는 장지마을은 안도대교를 통해 안도와 연결된다.

을 찾아 고요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좋은 자연 환경과 따뜻한 정으로 묵인 곳이지만 어촌 마을의 고령화는 장지마을의 고민이다.

이 사무장은 "30년 전만 해도 700명 정도 살았다. 많은 이들이 도시로 나가 살고 있고,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발전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소문난 매력적인 마을이지만 아직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비렁길의 코스 재조정도 이들이 생각하는 마을 부흥의 방법이다. 옛길이 아닌 밀에 길로 향하면 바닷가로 해서 걸을 수 있는 훌륭한 코스가 만들어진다. 출렁다리도 이들의 구상에 있다.

고려밭에 만들어진 봉수대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곳이다.

12월 말에 이곳에 서면 바다 위로 떨어지는 해를 볼 수 있다. 일출도 동시에 볼 수 있고, 운이 좋은 날에는 멀리 제주도도 볼

수 있다.

아직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다들 볼 수 있는 곳이 많은 장지마을. 문화와 레저가 있는 공간도 꿈꾸고 있다.

마을 폐교가 장지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명 나는 공간이다. 이들은 마을 폐교를 사들여서 풀장, 체험장, 캠핑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통이다. 교통이 관광의 중심이지만 접안 시설이 잘못되어 있다. 접안 시설이 보완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천혜의 금오도와 장지마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무장은 "비렁길을 지나 이곳에서 배를 타고 나간다면 관광객들에게도 최고의 동선이 될 것이다"며 "접안 시설이 갖춰진다면 관광선도 띄울 수 있고 더 많은 볼거리와 재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관광지 정비 등 오고 싶은 마을 만들 것”

진홍섭 어촌계장

“좋은 자연과 인심의 고향이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지마을의 진홍섭(57) 어촌계장은 지난 2016년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왔다.

진씨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장지마을에서 살았다. 이후 고향을 떠나 먼 서울에서 바쁜 삶을 살아왔다. 송파 종로학원에서 부원장을 하면서 교육자로 분주하게 지내왔던 그는 어머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느긋한 귀향인의 삶은 아니다.

그는 장지마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마을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

진씨는 “어르신들이 바다에서 은퇴하시게 되면서 미래 고민을 하고 있다. 단

순히 관광지화한다고 해도 소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마을 특성과 개발되지 않은 것들을 살려 체계적으로 마을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뉴딜 300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이 될 뻔 마을의 관광지를 손보고, 마을 폐교를 사들여 풀장, 체험장, 캠핑장을 만들고 싶은 게 진씨의 이야기다. 접안시설 보완을 통해 교통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도 장지마을은 물론 금오도 전체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진씨는 “해산물도 풍부하고 낚시를 하기에 좋은 곳이다.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바지락도 캐고 해초도 뜯고, 밤에



는 불낙도 잡을 수 있다”며 “환경도 좋고, 인심도 좋아 외부에서 마을로 와서 ‘한 달 살이’를 경험하고 가는 분들도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진씨는 “함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고향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진씨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작업도 하고 마을 축제도 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있다. 외부에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한테 어울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나이 더 먹기 전에 마을을 발전시키라는 역할을 맡게 됐다. 부지런히 뛰면서 마을을 알리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 → 신대교차로 여수, 목포 방면 → 해룡교차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울촌방면 → 돌산교차로 돌산, 향일암 방면 → 송시삼거리에서 성두, 군내, 은척사 방면 → 신기선착장 → 금오도 여천선착장 → 장지마을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여수종합버스터

미널 → 시내버스 109 114번 신기정류장 하차(약2시간) → 신기선착장(도보 6분) → 금오도 여천선착장 → 택시 및 버스 → 장지마을

▶ 열차

서울 용산역 → 여수엑스포역 → 시내버스 2 333번 109번 환승 신기정류장 하차(약2시간) → 신기선착장(도보 6분) → 금오도 여천선착장 → 택시 및 버스 → 장지마을



마을 전체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탓에 북풍을 피해 가는 장지마을은 겨울에도 낚시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황금어장'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최연수